

입환기 관차의 노후도 평가 : 차체 및 대차

Deterioration Analysis of a Shunting Locomotive: Carbody and Bogies

김정국*, 정종덕**, 편장식***, 장세기***, 홍용기***, 김원경**

Kim, Jeongguk, Chung, Jong-Duk, Pyun, Jang-Sik, Chang, Se-Ky, Hong, Yong-Ki,
and Kim, Woon-Kyung

ABSTRACT

Deteriorat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carbody and bogies of a shunting locomotive, which has been used for shunting works in steel making processes. In this investigation, various types of technical evaluation methods for the locomotive were employed to assess the current deterioration status. Corrosion test and nondestructive evaluation (NDE) techniques were employed to demonstrate the wear status of the carbody and bogie parts in the locomotive. Since the locomotive has been working under corrosive environment, the corrosion tests with x-ray analysis for exterior part of the locomotive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volution of corrosion reaction, and NDE techniques such as ultrasonic testing, magnetic particle testing, and x-ray radiography, were conducted on the carbody and bogies to inspect any possible inherent and/or in-service flaws. In this paper, the degree of deterioration in a shunting locomotive has been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1. 서론 및 주요목표

입환용 기관차는 비교적 저속(20 km/h 이하)에서 전인력을 우선하여 기동되며, 입환(shunting)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관차이다. 차체와 대차에 디젤엔진, 동력전달장치(변속기, 감속기), 제동설비 및 전기설비 등의 주요 기관들이 탑재되어 입환기관차를 구성하고 있다.

POSCO에서 구내 철강조업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5본급 입환용 기관차는 약 13년 전(92년 12월)에 도입된 차량인데, 노후도 관련 정밀진단을 통한 설비 교체시기의 타당성과 기준설정 적용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용내구년한 설정은 연수가 길어질수록 차량의 노후도가 증가하여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와 차량의 주요 부분이 사고에 의해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태의 차량을 대상으로 내구년수를 설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입환용 기관차는 도입 연수가 약 13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내 철강조업 수송용으로 24시간 4조 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입연구원, 정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교대의 연속적인 조업에 활용되는 관계로 차량 자체에 대한 과다한 부하와 구성 부품에 대한 평균 수명 저하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정비, 보수 및 마모 부품의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활용 기관차의 노후도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는 차체와 대차의 노후도 평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차체 및 대차의 정밀진단을 위해 외관상태검사, 3차원 치수 검사, 그리고 제조과정이나 사용중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파괴 검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차체의 주요 부위의 부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부식시험도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임활기관차의 차체 및 대차에 대한 노후도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2. 본론

임활기관차의 노후도 진단은 외관검사, 3차원 치수 측정, 비파괴 검사, 부식 평가 등을 차체 및 대차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차체 외관의 상태검사는 ‘좌표 자동 추적 3차원 측량기’를 이용하여 주요 치수측정, 깨비측정 및 수평도 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POSCO의 현지 암자 환경이 내륙지방에 비해 다소 염분량이 높고, 많은 분진 및 오염된 환경하의 어간에서 이뤄진 관계로 비파괴검사를 통한 구조체 외부의 부식정도 등의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차체와 대차에 용역이 집중되는 주요 부재의 상태 분석과 용접부에 대한 결합의 발생 및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적용될 비파괴검사는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자분탐상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2.1 차체의 정밀진단

2.1.1 외관상태검사

차량의 외관상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진단 차량의 구조체에 대한 치수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차량의 외관상태 조사도 수행하였다. 외관상태는 육안으로 외관의 변형, 균열여부 및 부식정도를 조사하였다. 외관상태 검사의 범위는 차체의 부식 및 변형도를 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외관상태 검사는 언더프레임(Under Frame) 및 하부장치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

2.1.2 차체 3차원 치수 검사

정밀진단 대상 차량의 치수측정은 기준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차체의 주요 치수를 설정하고 3차원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파거리 측량기(Light Wave EDM)를 사용하여 면위 계측을 수행하였다. 정밀진단 지침에서 제시하는 치수를 측정하고 측정값의 경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위치의 기준점을 배치하여 각 부위의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일 폐멜선상의 작업구간의 선로를 확보하기 위해 POSCO 공정출하부 정비공장을 대상차량측정위치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평가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차체치수 평가기준

측정항목	설계기준	측정위치
차체지붕높이	4000mm	A : 차량중앙(센터윤전설)
	3204.5mm	B : 후위(보조윤전설)
차체폭	2810mm	C 기관차 전위/후위 끝단
	2790mm	C 기관차 중심
	2790mm	D 볼스터 전위/후위 중심
언더프레임 상면높이	1310mm	D 기관차 전위/후위 끝단
		D 기관차 중심
		E 볼스터 전위/후위 중심
차체 길이	12800mm	E

차량의 차수 및 변위측정을 위해 비접촉 방법인 3차원 좌표측량기를 사용하여 차수 및 변위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차체 캠버량은 역캠버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차체의 침은 좌측이 -2.0, 우측이 -4.3으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 2) 언더프레임의 수평도는 전후, 좌우, 대각차가 기준범위 내에 있어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 3) 차체길이는 설계치보다 좌측이 0.4mm, 우측이 5.9mm 깊게 나타났다.
- 4) 차체폭은 기관차의 전위, 후위, 블스터(전위, 후위), 차량중심의 5곳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 5) 언저프레임의 상면높이와 지붕높이는 스프링의 처짐으로 인하여 기준치보다 작게 나왔다. 언더프레임의 상면은 설계기준보다 45.9~53.5mm 작게 나왔으며, 지붕높이는 후위부의 보조운전실과 중앙운전실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보조운전실의 경우 설계치보다 32.4mm 작게 나타났으며, 중앙운전실의 경우 26.3mm 작게 나타났다.

2.1.3 차체 비파괴검사

기관차의 운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주요부위에 대한 결함의 생성 여부와 생성된 결함의 진전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다. 비파괴검사는 각 부위별 특성 및 결함의 종류에 따라 초음파검사와 자분탐상검사로 실시하였다.

2.1.3.1 초음파 두께측정 (Ultrasonic Thickness Measurement)

초음파 탐상검사는 현재 비파괴검사 중에서도 실험데이터 검출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빠른 검사결과의 확인, 장비의 이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의 측정을 위해 펄스에코밀리가 사용되었으며, 1차원적인 초음파 신호의 분석을 통해 통한 초음파 A 스캔 분석을 통해 두께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75톤 입환기관차의 사용 중 부식으로 인한 두께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검사는 KS-B-0536의 초음파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도면을 통해 나타난 공칭 두께는 30mm이며,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표면을 그라인딩 하여 평활도를 유지하여 글리세린을 접촉매질으로 하여 탐촉자를 적용시키며 A 스캔에 의해 두께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초음파 장비는 SONATEST의 SITESCAN130이 이용되었고, 본 측정에서 이용된 탐촉자는 2 MHz의 주파수를 지닌 직경 10 mm의 탐촉자 1개가 이용되었다. 초음파 두께 측정은 차체의 주요부위 중에서 16개소의 두께가 측정되었다.

2.1.3.2 자분탐상검사 (Magnetic Particle Testing)

자분탐상검사는 비파괴 검사방법 중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강자성체인 시험체의 표면 또는 표면 바로 밑의 불연속(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시험체에 자장을 걸어 자화시킨 후 자분을 적용시키고, 누설자장으로 인해 형성된 자분의 분포를 관찰하여 그 분포의 크기, 위치 및 형상 등을 통해 결함의 존재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분탐상검사는 75톤 입환기관차의 사용 중의 부식에 의한 침식 또는 용접부위의 결함의 존재 및 진전 여부의 평가를 위해 차체 (언더프레임의 센터설, 블스터 및 교차부위 |센터설과 블스터 및 센터설과 크로스빔|)와 대차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가 실시되었다. 자분탐상검사는 강자성체인 시험체의 표면 및 표면 바로 밑의 불연속(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시험체에 자장을 걸어 자화시킨 후 자분을 적용시키고, 누설자장으로 인해 형성된 자분지시를 관찰하여 그 지시의 크기, 위치 및 형상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며, 본 검사에서는 KS D 0213에 따라 검사가 실시되었다. 자분탐상검사는 경도양행의 오오쓰 MP-A3모델로 실시되었으며, 세부적인 시험조건은 표 2에서 요약되어 있다.

표 2 자분탐상검사 시험조건

항목	시험조건	항목	시험조건
표면온도	16-19°C	자분분산체	습식(등유)
표면조건	As Welded	자화방법	요오크
표면처리	그라인딩	자화전류	AC 2.5 Amps
자분의 형태	습식/비형광	자극간격	3-6 inches
자분농도	2g/liter	동진시간	5 초.

자분탐상은 주로 용접부위에서의 결합발생여부와 잔존결합의 전진여부를 살피기 위해 행하여졌는데, 언더프레임의 센터씰, 불스터 및 교차부위(센터씰과 불스터 및 센터씰과 크로스빔)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75분 입학기관차에 대한 자분탐상검사 결과는 차체 언더프레임의 용접부에 대하여 뚜렷한 표면결합의 결출이 없었고, 용접부위에 대해서도 결합이 발견되지 않았다.

2.1.4 차체 부식검사

그림 1은 기관차 외부의 측면 벌판에서 샘플링 하여 붉은 녹의 형상 및 붉은 녹 부위에 대한 정량적 성분분석 결과를 각 성분의 검출 강도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붉은 녹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매우 거칠고 퀴약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부스러져 이탈되거나 쉽다. 저배율에서는 구분이 잘 안되지만 배율이 높아질수록 부식층의 구조가 자세히 관찰이 되는데 결합력이 약한 많은 결집체들이 끊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식층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형성되므로 사진에서 보이는 결정체들은 충충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전진되어 온 것들이다. 이를 부식층에 대한 성성분석 결과, 여러 성분들이 검출되었으나 일부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S로 표시된 황 성분은 매우 미량이라 할지라도 강재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규소와 쿠마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규소 역시 산소와 친화력이 좋은 물질로서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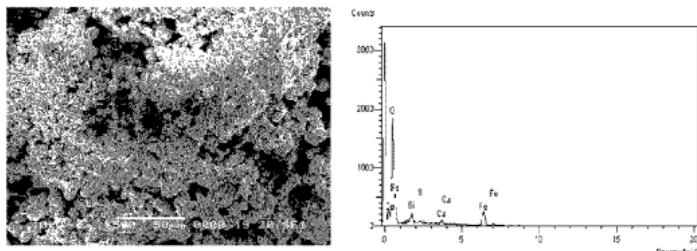
그림 2는 붉은 녹이 관찰된 부위의 하부에 있던 소지강판 부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깊이 방향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강판의 부식부위에 대한 성분분석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황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황은 부식층을 통해서 소지강판으로 침투하여 강판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식층이 떨어져 나올 때 일부는 소지강판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들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표면에 작은 뭉어리 상태로 여기서기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데군데 소지강판이 깊이 폐인 부위들이 관찰되는데 이런 부위는 대부분 황에 의한 부식과정에서 깊이 방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검출된 성분 원소들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검출된 원소들과 다를 바는 없지만 원소의 양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비를 보면 부식층에 비해서 칼슘과 규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황의 양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백분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양에 의해 개별 원소들의 함유율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들 세 원소만 비교할 때 그려한 변화가 관찰된다. 다시 말하면, 황은 부식층 자체보다는 부식에 의해 공격을 당한 소지 금속에 보다 많이 관여하면서 더 이상의 부식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칼슘과 규소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부식층에 전이되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원소들은 산소와의 친화성을 좋지만 부식이 된다하여도 자신만이 부식되지 철까지 부식되지도 하지는 않는다.

그림 3은 후위부 기계실 Hood Door 부위에서 샘플링 된 부식부위이며 황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강판의 내부까지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판 표면에서 일부 부식층은 이탈되어 분리되었고 작류한 부식물 잡자들이 소지강판에 밀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부식은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시작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부식상태 밖으로는 부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차체 또는 구조물의 일부분이 부식되어 깊이 방향으로 부식반응이 진행되면 세작 단계에서 안전치수를 고려하여 설계한 강판의 두께는 이미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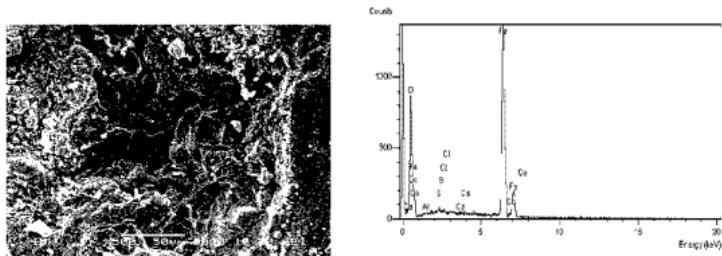
된다. 구조물의 갑작스런 파손은 작은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어느 부분이 부식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전동이나 하중 등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체는 언제든지 초기 설계값을 민족시키는 안전한 조건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a) 붉은 녹 표면형상 (X500)

(b) 붉은 녹에 대한 정성분석(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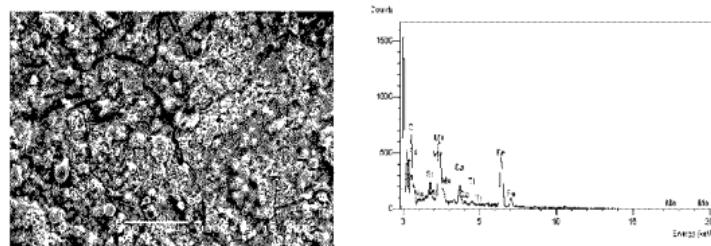
그림 1. 기관차 작업실 외부 바닥의 붉은 녹에 대한 분석결과



(a) 붉은 녹 하부강판 형상 (X500)

(b) 하부강판에 대한 정성분석(EDS)

그림 2. 기관차 작업실 외부 바닥의 부식부위에 대한 분석결과



(a) 운전실측면 부식 부위 형상 (X500)

(b) 정성분석(EDS)

그림 3. 기관차 운전실측면 부식 부위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된 부위는 기관차의 바닥, 측면, 기계실 및 하부 프레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운전석의 바닥과 높이가 같은 외부 바닥부위 및 운전석 측면부위 등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부위는 깊이 방향으로 부식이 상당히 전진되어서 안전허용 기준을 이미 초과하였거나 또는 교체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식 생성물 중에 황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황은 부식층에 관재하기 보다는 소지 금속으로 침투하여 깊이 방향으로 부식을 진행시키고 이후 측면으로 확장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점보기에는 단순한 부식으로 판찰될 수 있으나 부식층을 제거하고 관찰하면 하지에 있는 강제가 심하게 부식되는 경우가 자주 판찰된다.

2.2 대차 정밀진단

대차의 정밀진단은 쉽게 교환이 가능한 소모품은 진단 항목에서 배제하고 장시간 사용되며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 필수적 구조물인 대차 프레임을 중심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기로 한다. 대차를 차체와 분리한 후 주요장치에 대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대차프레임의 결함을 찾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대차프레임의 비파괴검사 방법은 자분탐상검사와 방사선투과검사로 수행하였으며, 자분탐상검사는 대차프레임의 용접부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방사선투과검사는 내부 균열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수행하였다.

2.2.1 외관상태검사

- 1) 육안으로 외관상태를 점검하여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과 육안으로 확인된 취약부 중 주요부위는 비파괴 검사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 2)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 부위는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 대차 프레임 :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
 - 윤축장치 :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
 - 차륜과 차축의 개워 맞춤 부위, 제동디스크 장착부위에 균열, 변형 등이 있는지 확인.
 - 축상조립장치 :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
 - 현수장치 :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
 - 센터피봇장치 : 변형, 부식, 균열, 조립상태이상, 기타 흠집이 있는지를 확인.

대차의 외관상태는 전체적으로 기름때와 분진 등으로 덮여져 있으며, 차륜의 상태는 잘상현상으로 인해 차륜면이 깨끗하지 않았다. 운행노선은 곡선구간이 많아 플랜지의 마모가 한쪽 부분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과중한 부하가 작용하여 차륜의 마모와 제동슈의 마모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센터피봇과 대차가 맞닿는 부위에 흠집이 나 있었으며, 고온의 직업 환경으로 인해 고무 부품이 흠집이 나거나 크래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2 대차 비파괴검사

2.2.2.1 자분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Testing)

자분탐상검사는 75분 입환기기관차의 사용 중의 부식에 의한 침식 또는 용접부위의 결함의 존재 및 전진 여부의 평가를 위해 대차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가 실시되었다. 자분탐상검사는 강자성체인 시험체의 표면 및 표면 밖의 불연속(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시험체에 자장을 견이 자화시킨 후 자분을 적용시키고, 누설자장으로 인해 형성된 자분자리를 관찰하여 그 지지의 크기, 위치 및 형상 등을 견사하는 방법이며, 본 검사에서는 KS D 0213에 따라 견사가 실시되었다. 자분탐상검사는 강도양형의 요오크 MP-A3모델로 실시되었으며, 세부적인 시험조건은 표 2와 같다.

2.2.2.2 방사선투과검사(Radiography testing)

본 검사에서는 임환기기관차 421-25호의 전위대차와 후위대차에 대하여 용접부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단벽투과단상검사 방식의 방사선검사가 이루어졌다. X-ray 선원은 1.3×3.0mm의 크기를 가지며, 선원과 웨이브간의 거리는 250mm, 각도는 70° 방향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노출시간은 2분 10초가 소요되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전후 대차에 대하여 각각 6부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데, 방사선투과검사의 주요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벌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위대차의 한 부위에서 적경 4mm와 2mm의 기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조 당시의 용접부에서 나타난 결함으로, 실제 기장주위의 균열의 결과는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성에서는 벌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2.3 대차의 정밀진단 결과 정리

대차의 안전진단은 대차 해체 후 주요장치에 대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자분단상검사와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였다. 자분단상검사는 대차프레임의 용접부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방사선투과검사는 하중을 많이 받는 대차사이드프레임의 용접결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였다. 이상에서 수행한 대차의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차륜의 상태는 철상현상으로 인해 차륜면이 깨끗하지 않으며, 플랜지의 마모는 한쪽 부분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환기관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결합의 존재 및 분포와 외부 부식과 관련된 결합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비파괴 검사가 실시되었다. 자분단상검사결과 아무런 결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투과검사 결과 사용에 의한 내부균열은 발견되지 않았고, 치음부터 잔존하고 있던 기공만 일부 발견되었다. 검사부위는 기관차 운행 중 충격이 집중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안전 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및 정리

1. 사용내구연한 및 폐차기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추어보아 차량용도폐지는 차량의 사용년수 대비 노후도에 따른 보수비용과의 관계로써 차량 폐차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의한 차량의 폐차는 주요부품의 노화현상으로 전반적인 교체 및 보수가 요구될 때 행해지고 있다.

2. 차체정밀진단 노후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차체의 상태검사결과 중요 부위인 언더프레임은 운행에 따른 변형이 없었으나 상판의 경우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차체 캔버량은 역캠버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차체의 흡은 양호하였다.
 - 초음파검사결과 외부 부식에 의한 두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었으며 자분단상검사결과 용접부의 표면결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 언더프레임의 상면높이는 스프링의 차짐이 약 50mm 정도 발생하였으며 언더프레임의 수평도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었다.
 - 초음파검사결과 외부 부식에 의한 두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었으며 자분단상검사결과 용접부의 표면결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 기관차 외피의 일부 부위는 길이 방향으로 부식이 상당히 진전되어서 안전 허용 기준을 이미 초과하였거나 또는 교체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식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장판의 부식부위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황성분이 검출되었다.
3. 대차프레임의 용접부에 대한 자분단상검사결과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드프레임 방사선 투과검사 결과도 사용에 의한 내부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위대차의 한 부위에서 적경 4mm와 2mm의 기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조 당시의 용접부에서 나타난 결함으로서

실제 기공주위의 규열의 전파는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경중덕 외 (2004), "(주)POSCO 75톤 입환기관차 노후도 경밀진단," 연구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경중덕 외 (2003), "서울시 1호선 사고전동차 안전진단," 중간 연구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도시철도차량의 경밀진단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334호.
4. 철도청 차량제이 전동차 경밀진단결과보고서 (200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 Nondestructive Testing Handbook, 2nd ed., Vol. 10, Nondestructive Testing Overview, S. Ness, C. N. Sherlock, P. O. Moore, and P. M. McIntire, 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Inc., 1996.
6. ASM Handbook: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Quality Control, Vol. 17, (ASM International, 1992).